

동해해수청, '25년도 사설항로표지 관계자 간담회 개최

- 사설항로표지 관리·운영 개선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채균)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한 해상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설항로표지 소유자, 위탁관리사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5월 27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사설항로표지 관련 법령과 2025년도 상반기 관리실태 지도점검 결과를 공유하였고,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 등을 수렴 후 사설항로표지 관리방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동해해수청 관내에는 동해시 등 34개 기관(사)과 항로표지 위탁관리업 9개사가 교량, 방파제 등 해양시설물 보호와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상공사구역과 항로에 설치된 사설항로표지* 128기를 설치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

* 사설항로표지란 자기의 사업 또는 업무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로표지(등대, 등부표 등)를 말한다.

또한, 안전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중대재해 예방 교육,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등을 함께 실시하였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정보시설과장은 "앞으로도 안전한 해상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사설항로표지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항로표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행정정보시설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 당	계 장	김도균 (033-520-6273)
		담당자	주무관	최종찬 (033-520-6276)

참고

관련 사진

